

가능성이란 항상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주며, 이를 잃어버린 생활은
 특별한 목표가 없는 부평초같은 의미없는 삶이
 되기도 한다.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어 나가기 위해
 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요구되어지며, 어떤 경우에
 는 전혀 생각지 못한 암벽이 앞을 가로막기도 한
 다. 힘들기는 하지만 가능성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생활, 이것이 바로 기쁨과 행복을
 생산해 내는 '삶의 원천'일 것이다.
 최근 4~5년 동안에 타 지역의 도시개발에 따른 양돈
 농가수의 감소와는 반대로 자연적 여건의 도움으로
 새로이 양돈농가가 늘고 있는 대한양돈협회 함양지부는
 함양의 양돈발전 가능성을 크게 인지하고 더욱 빠른
 시일내에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지부이다.



▲노익한 지부장

고속발효사료 제조하는

함양지부

본 회 함양지부는 '89년부터 구성되어 있던 '함양군 양돈회'를 모태로 '92년 10월 13일 창립되었으며, 현재 제4대 노익한 지부장이 지부장을 역임하고 있다. 회원수는 44명이다.

함양은 지리산 기슭의 자연적인 여건으로 90년 이후 타 지역의 양돈산업 위축의 부수적인 결과로 양돈산업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지금은 100여호에서 양돈을 하고 있다.

양돈산업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지역 중의 하나가 바로 함양이다.

함양의 양돈농가는 최근에 늘어난 이유로 시설은 잘 되어있는 편이지만 호당 두수는 아직 적은 편이며, 돼지의 출하는 50%정도 부경양돈조합으로, 30%는 일반상인에게, 20% 정도는 도매시장으로 내고 있다고 한다.

함양지부의 주요사업은 가축분뇨처리사업과 농업부산물 사료화사업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정부에 사업건의를 해 정부지원(80%)으로 구입한 분뇨처리시설은 분뇨탱크차량 1대, 분운반차량 2대로써 특히 농한기를 이용해 이를 활용하고 있다. 또한 내년엔 준공될 것으로 보이는 함양의 축산분뇨처리공장의 가동과 함께 이차량들을 최대한 이용해 회원 농가들의 분뇨처리 문제를 덜어 줄 계획으로 있다.

한편, 지난 4월 8일 준공식을 가지고 양돈농가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농업부산물 사료화시설은 다른 지부에서는 볼 수 없는 함양지부의 독특한 사업으로써 함양지부를 이끌어가는 현 노익한 지부장의 사업추진 능력과 함께 함양지부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지부의 농업부산물 사료화 시설을
노익한 지부장이 설명하고 있다.

지부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농업부산물 사료화 시설은 미강, 맥강, 비지등 모든 농업부산물(주로 미강)을 원료로 미생물을 이용한 발효사료를 만드는 것으로써 첫째, 질병에 대한 항성을 높이고 둘째, 분뇨냄새를 줄이는 등 돈사의 환경을 개선시키며 셋째, 사료대체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넷째, 소화분해를 촉진시켜 사료효율을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

이 미생물 발효사료는 주로 사료에 섞어서 먹이며, 실제로 발효사료 때문인지 올해 함양에서는 설사병이 심하게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할 만 하다.

지부에서는 발효사료 제조원가인 30kg당 6,500원에 전 회원들에게 이를 공급하고 있으나, IMF로 인한 회원농가의 경영악화와 농가 부산물가격의 상승, 회원들의 발효사료 이용효과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아직까지는 그다지 활발한 활동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현 노익한 지부장은 '시설의 운용을 더욱 유동성있게 하면서 회원농가들의 인식을 높이고, 최선을 다해 군에 건의하여 이의 처리자금을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방



분뇨탱크 차량



함양지부는 분 운반차량 2대를 보유하고 있다.



회원들이 돼지출하시 이용하는 출하차량

안도 강구할 것'이라며 함양지부가 서부경남에서 우뚝 설 날이 있을 것이라며 신념에 찬 모습을 보였다.

함양지부는 매월 세미나를 겸한 월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매년 1회씩 회원들과 함께 선진지 견학을 함께 한 야유회를 가지기도 하는 등 회원을 위한 기본적인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또한 사료와 기자

재 공동구매, 돼지 공동출하로 회원들의 경제적 이익을 높이는 한편 지부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지역의 천령영농양돈법인의 협조를 얻어 그곳 인공수정시설을 활용, AI센터를 운영할 계획도 있다고 한다.

노익한 현 지부장은 양돈농가가 안정적으로 축산을 할 수 있도록 축산물 가격안정이 가장 중



▲좌로부터 서윤덕 총무, 김정국 공장장, 노익한 지부장, 김순덕씨.
뒤편에 보이는 건물이 지부사무실과 공장을 겸한 함양지부 건물이다.

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자조금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는 기금입니다. 협회가 자조금제도를 빠른 시일내에 실시하여 정부와 함께 최저 가격제를 실시해 주었으면 합니다”라고 바램을 말했다. 양돈이 한층 더 경쟁력을 가지고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생산자가격과 소비자가격의 차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제도화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정육점의 경우에도 너무 과도한 상태여서 이윤을 높이고 있는 것 같다’며 자격증 있는 사람에 한해서 지역별로 갯수를 지정해서 통제하는 것도 한 방안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협회의 돼지고기 소비·홍보사업을 더욱 더 실제로 소비자들에게 직접 인식될 수 있게 해 줄 것과, 협회와 정부가 힘을 모아 경매제도를 지양한 균일화된 종돈을 공급해 줄 것을 바라며, 안전 돼지고기 생산에 관한 홍보가 잘 이루어진 점에 대한 만족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취재 : 조진현> **養豚**



▲작년 9월 모든 회원들이 지부사무실이 딸린 농업부산물 사료화 공장을 신축하는데 힘을 모으던 장면